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진정한 문제점은 ?



최진호 박사
(최진호 연구소장)

작년 11월에 17명의 연수단을 이끌고 네덜란드의 바네벨트대학에 2주간의 양돈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다. 양돈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실제적인 사항들을 공부하는 데 매우 유익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양돈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양돈산업에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택해서 우리나라 사정과 비교해볼까 한다.

첫째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돈장의 규모는 모돈 150두 규모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장과 그 자돈들을 구입해서 비육시키는 농장으로 분업화되어 있으므로 모돈 150두 농장이라고 하면 이들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을 25kg까지만 키워서 판매하는 농장을 말한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번식돈 농장이라고 하면 거의 확일적이라 할 정도로 사육두수는 모돈 150두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한 가족(보통은 부부)이 외부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규모가 모돈 150두 규모이기 때문이다. 물론 양돈장의 시설은 우리나라의 양돈장과 비교해보면 매우 우수하다. 만일 사육규모를 늘리면 더 이상 가족단위로 관리할 수 없게 되므로 외부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의 지출은 감수하더라도 농장의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양돈장은 큰 회사들이 경영하는 기업적인 규모의 농장을 제외하고는 가족 이외의 관리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농장은 주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서만 관

리되므로 그만큼 정성껏 관리하게 되고, 따라서 농장의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들 농장에서의 모든 두당 연간 평균 출하두수는 21~22두이며, 이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그 사회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양돈장은 어떠한가? 시설과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사육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는 15~16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100두 정도의 규모만 되면 보통 농장주는 도시에서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농장은 관리인에게 맡겨두고 관리하는 농장이 많다.

둘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마침 우리가 연수하는 기간에 네덜란드의 양돈업계는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는 중이었다. 돼지의 출하가격은 생산비의 절반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연수단원들의 질문은 주로 “이러한 때 정부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였다. “불쌍한 양돈농민들이 어렵게 돼지를 길러서 생산비도 못건지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마땅히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묻는 우리가 오히려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 지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의 극심한 불황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문제보다는 양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해문제 해결과 치열해지는 국제경쟁(EU내의 국가간에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더욱 우수한 품질의 돈육을 생산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농업은 타산업에 비해서 불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축산업도 농업에 속하므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져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정부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양돈업의 진정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 양돈업의 생산성은 구조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앞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모든 두당 연간 평균 출하두수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주인이 직접 관리하고 또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에서는 20두 이상 생산하는 농장도 많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농장은 24~25두 생산하는 농장도 더러 볼 수 있다. 만약 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 18두 이하인 농장을 제외시킨다면 우리나라의 평균도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20두 이상 생산하는 농장들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없는 농장이 하루 속히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빠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